

제 1 교 시

2023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이
관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자 반응 비평 이론가인 야우스(H. R. Jauss)는 기대지평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독자가 문학 작품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기대지평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독자가 문학 작품에 대해 갖게 되는 해석과 평가의 준거로, 독자의 경험, 지식, 습관 및 사회의 통념, 관습, 전통,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된다. 기대지평은 독자에 따라 다르고 한번 형성된 기대지평 역시 이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작품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인 것일 수 없다. 하나의 기대지평은 그것을 적용하는 시점에 작품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뿐이다. 또한 기대지평은 집단적 차원에서도 형성되어 개인의 기대지평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대지평의 창출과 변화에 기여한다.

문학 작품의 수용은 독자의 기대지평과 작품의 기대지평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자의 기대지평이 독자가 작품에 대해 적용하는 준거라면, 작품의 기대지평은 이 작품의 수용을 위해 독자가 가져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준거라 할 수 있다. 작품의 기대지평과 독자의 기대지평 간에 거리가 존재하는 경우 독자는 이를 인식하고 작품에 대한 부정, 거부감, 혼란, 낯설 등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작품 수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적 긴장이라 한다. 부정이나 거부감을 중심으로 미적 긴장을 경험하는 독자가 새로이 형성한 기대지평은 기존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미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탐색하며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도하는 독자는 기존의 기대지평을 현저히 변화시켜 작품의 기대지평에 부응하고자 노력한다. 이 과정을 거쳐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한 독자에게 일어난 기대지평의 변화를 지평전환이라 한다.

독자 반응 비평에서는 전통적인 문학 비평이 작가의 의도, 시대적 배경, 윤리적 준거 등이 작품에 끼치는 영향에 치중하거나 작품 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작품의 언어적 특성과 문학적 기법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간과되어 왔던 독자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 반응 비평은 독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독자와 작품 사이의 상호 작용을 탐구함으로써 문학 작품의 생산자는 작가이지만 문학 작품을 예술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독자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접 분야의 개념을 활용하여 독자 반응 비평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자 반응 비평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독자 반응 비평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며 그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독자 반응 비평을 설명하고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부연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문학 비평의 임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작품과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 ② 작품의 언어적 특성을 연구하여 예술적 가치를 밝히는 것이다.
- ③ 시공간을 초월하는 작품의 보편성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 ④ 독자가 작가의 의도를 중심으로 작품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 ⑤ 작품이 창작된 시대 배경을 조사하여 작품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1970년대 발표된 소설 A는 2인칭 주어로 서술되는 문장의 나열과 같은 형식적 파격과 함께 도덕적 일탈을 옹호하는 주인공을 다루어 당대 독자층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A에 대한 조직적인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문학을 전공하고 있던 독자 B는 A를 처음 읽고 혼란을 느꼈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A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찾아 이에 공감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21세기를 맞이하는 문학의 의무’라는 강연회에서 독자 B는 A의 작가가 ‘소설 A를 통해 시대에 저항한 선구자’로 소개되어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 ① A가 도덕적 일탈을 옹호하는 주인공을 내세워 비난을 받은 것은, 사회의 관습이나 통념이 기대지평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 ② A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B가 새로운 의미를 탐색한다는 것은, 기대지평이 과거에 읽었던 동일한 작품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새로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③ A가 발표되자 조직적인 거부의 움직임이 드러난 독자층의 모습은, 미적 긴장 상태에 대한 경험의 부재가 작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④ A가 발표 당시 독자층에게 비난받았던 것과 달리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기대지평의 형성과 변화가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 ⑤ A가 발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시대에 저항한 작가의 작품으로 소개된 것은, 발표 당시 독자의 기대지평이 전환을 거쳐 작품의 기대지평에 부응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군.

[4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화를 전후로 나타난 유럽의 인구 현상 중 하나는 고출생률과 고사망률에서 저출생률과 저사망률로의 변화였다. 이 과정을 인구 변천이라고 하며, 인구 변천의 결과 유럽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보이며 인구가 증가하다가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인구 현상을 관찰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구 변화를 설명한 모델을 ㉠ 인구 변천 모델이라고 한다.

인구 변천 모델의 기본적 전제는 근대화와 출생률의 감소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 변천 모델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인구 성장률이 자발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다가 저출생률과 저사망률의 상태에 이르고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인구 변천 모델은 이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고위 정지 단계로 주로 근대화 이전의 시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며, 고출생률과 고사망률을 나타내어 안정성을 보이고 인구 증가가 거의 없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확장 단계로 사망률은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출생률은 그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폭발 현상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유는 영양 개선, 공중 위생·보건 시설의 보급 및 의학의 발달 등이다. 세 번째 단계는 후기 확장 단계로 출생률의 감소 속도가 사망률의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서 인구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출생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결혼 연령 상승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가족 계획 등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저위 정지 단계로 저출생률과 저사망률 상태에 들어서며 인구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인구 변천 모델 이후 타바라(Tabbarah)는 새로운 관점에서 근대화와 출생률 감소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는 부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구 규모에 기반하여 출생률 감소가 왜 나타나는지, 어느 시점에서 출생률 감소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타바라는 ‘부부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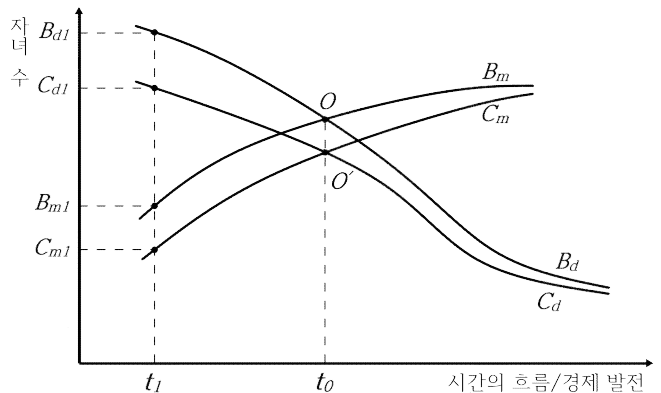
수(C_d)와 ‘부부의 부양 능력에 맞는 최대 자녀의 수(C_m)’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C_d 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수치이며, 이를 생산율*로 나누면 ‘부부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 수를 갖추기 위해 실제 출산해야 하는 자녀의 수(B_d)’를 알 수 있다. 또한 C_m 은 통계 자료에서 추출한 ‘부부의 부양 능력에 맞는 최대 자녀 수를 갖추기 위해 실제 출산해야 하는 자녀의 수(B_m)’에 생산율을 곱해 산출할 수 있다. 타바라는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 인구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인구 발전 모델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C_m 이 C_d 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출산율*도 낮고 자녀들의 생산율도 낮기 때문에 C_m 도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C_d 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 단계는 C_m 과 C_d 가 거의 비슷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부부는 원하는 이상적인 수만큼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출산율과 생산율이 증가하여 C_m 은 상승하는 반면에, 부부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는 적어져서 C_d 가 하강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C_m 이 C_d 를 약간 능가하게 되며,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C_m 이 C_d 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 부부들은 부양 능력에 맞는 최대의 수만큼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수만큼만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은 인구 발전 모델에서 시간의 경과나 경제 발전에 따라 실제로 원하는 자녀 수와 최대로 출산할 수 있는 자녀 수의 변화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 발전의 첫 번째 단계인 시점인 t_1 에서 부부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는 C_{d1} 이다. C_{d1} 을 갖기 위해서는 B_{d1} 만큼의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B_{d1} 에서 C_{d1} 을 뺀 만큼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 수를 실제로는 가질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부양 능력을 고려했을 때의 출산 수준이 B_{m1} 에 머물러

[A] 있기 때문이며, 사망자 수 때문에 실제로 갖게 되는 자녀 수는 C_{m1} 로 나타난다. 그러나 B_d 가 B_m 보다 클 경우 출산력*이 증가하여 출산 곡선은 B_m 곡선의 방향을 따르게 된다.

인구 발전의 두 번째 단계인 시점 t_0 에서는 B_m 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은 B_d 와 일치하게 된다. 부부가 실제로 출산한 자녀의 수가 그들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만큼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t_0 이후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부터는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만큼만 출산하게 되어 출산 곡선은 B_d 곡선의 방향을 따른다. 따라서 t_0 이후에는 가족 계획이나 피임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부부들의 출산 곡선은 B_m-O-B_d 의 곡선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타바라의 모델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출산 양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 생산율: 한 연령층의 인구 집단이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난 후까지 살아남게 되는 확률.
 * 출산율: 특정 기간의 출생자 수를 해당 기간 가입 연령의 여성 인구로 나눈 비율.
 * 출산력: 한 인구 집단의 실제적인 출산의 빈도.

4.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인구 변천 모델에 반영된 이론적 배경
- ② 인구 변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
- ③ 인구 발전 모델에 활용된 변수들을 산출하는 방법
- ④ 인구 발전 모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구 현상과 의의
- ⑤ 인구 변천 모델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 추세

5. ㉠과 ㉡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출생률과 근대화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였다.
- ② ㉠은 근대화 과정에서 인구 성장률이 자발적인 수정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다.
- ③ ㉠은 후기 확장 단계에서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 폭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 ④ ㉡은 부부가 원하는 출산 수준이 부양 능력을 고려했을 때의 출산 수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은 부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구 규모에 기반하여 출생률 감소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A]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B_{m1} 에서 C_{m1} 을 뺀 숫자는 t_1 시점에서의 생산율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② t_1 에서 t_0 으로 진행되는 동안 출산력은 B_d 와 B_m 값의 차이에 비례하겠군.
- ③ 부부의 출산 수준에 따른 실제 출산 곡선은 $C_m-O'-C_d$ 의 형태로 나타나는군.
- ④ t_1 에서 t_0 으로 진행되는 동안 부부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군.
- ⑤ B_d 와 C_m 이 만난 지점 이후로는 부부가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겠군.

7. 윗글을 바탕으로 볼 때 <보기>의 ‘제2차 인구 변천 이론’이 등장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 보 기 > —

20세기 후반 이후 결혼 연령 상승, 결혼과 출산 간의 단절, 비혼주의나 결혼 제도의 파괴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출산력이 감소하였다. 기존의 인구 이론으로는 이러한 인구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차 인구 변천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 이론은 출산력의 감소가 인구 안정 상태를 깨뜨린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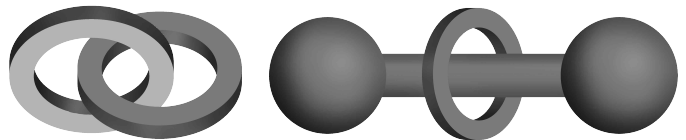
- ① 인구 변천 모델은 결혼 연령의 변화가 출산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 ② 인구 변천 모델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가 인구 안정 상태를 깨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③ 인구 변천 모델은 인구 변화가 정체된 상태 이후에 나타난 출산력 감소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 ④ 인구 발전 모델은 비혼주의나 결혼 제도의 파괴를 출산력 감소의 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 ⑤ 인구 발전 모델은 이상적인 가족 규모와 실제의 가족 규모 간의 차이로 인해 출산력의 변화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8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자는 원자의 결합체 중 독립 입자로서 작용하는 단위체로, 화학적 결합의 하나인 공유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원자나 원자단 간에 작용하여 이들의 집합체를 하나의 뚜렷한 단위체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화학적 결합에는 공유 결합 외에도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이 있다. 화학적 결합과 달리 기존의 물질이 유지된 채 물리적으로만 연결된 결합을 기계적 결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계적 결합보다는 화학적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며 화학적 결합 중에서는 공유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가 가장 크다. 결합을 해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결합에 필요한 결합 에너지와 같으므로, 결합 에너지가 다시 가해지지 않는 한 분자는 다시 원자 단위로 분해되지 않고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분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분자 집합체 중 일부는 분자 간의 위치나 연결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상학적 상관관계를 이용한 기계적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기계적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개별 분자의 공유 결합을 해체해야 한다. 따라서 ㉠ 이러한 분자 집합체는 분자 수준의 독립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의 카테네인은 고리 모양의 분자 두 개가 사슬처럼 서로 수직으로 맞물려 결합된 분자 집합체로, 고리 간의 결합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개별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림 1>의 로탁세인은 양쪽 끝에 입체 장애가 있어 고리 모양의 분자가 빠져나갈 수 없게 한 형태의 분자 집합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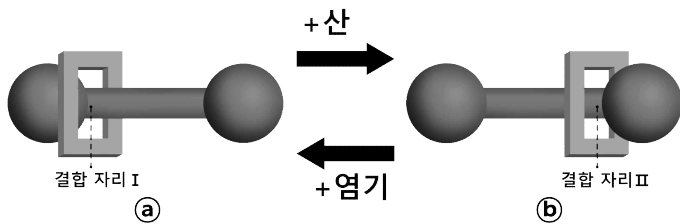


카테네인

로탁세인

<그림 1> 카테네인과 로탁세인의 구조

이들 분자 집합체는 분자 기계의 구조적 기반을 이룬다. 분자 기계는 물리적 자극인 빛이나 열, 화학적 자극인 산이나 염기와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해 회전 운동이나 직선 운동과 같은 일정한 기계적 움직임 구현할 수 있는 분자 집합체이다. 카테네인은 금속의 산화-환원에 따라 회전 운동을 하는 분자 기계로 작동하며, 로탁세인은 사각형 고리가 축의 특정한 자리에서 결합하면서 좌우로 직선 운동을 하는 분자 기계인 분자 셔틀의 기본 구조를 이룬다. ㉡ 분자 셔틀의 축에는 고리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결합 자리 I과 결합 자리 II가 있다.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 상태의 고리는 전자가 풍부한 결합 자리 I을 선호하므로,



<그림 2> 분자 셔틀의 작동 원리

평형 상태에서는 <그림 2>의 ㉢와 같이 고리가 결합 자리 I에 있을 확률이 결합 자리 II에 있을 확률보다 더 높다. 외부에서 브뢴스테드-로우리 산을 넣어 결합 자리 I을 양성자화하면 결합 자리 I과 고리 사이에 정전기적 반발력이 생기면서, 고리와의 친화도가 산성 상태에서 더 큰 결합 자리 II로 결합

자리 I에 있던 고리가 이동하여 <그림 2>의 ㉣와 같은 상태가 된다. 염기를 넣어 중화하면 고리는 다시 결합 자리 I로 되돌아간다. 분자 부품을 원위치로부터 0.7nm만큼 들어올리는 데 성공한 분자 엘리베이터나, 근육의 수축과 이완 현상을 모사하는 인공 근육의 작동도 로탁세인을 이용한 것이다.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지속하는 ㉤ 분자 모터도 분자 기계의 하나이다. 육각형의 탄소-탄소 이중 결합 화합물이 과밀집된 방향족 구조인 작용기는 작은 모터날처럼 평평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작용기의 한쪽 끝에는 메틸기(-CH₃)가 결합되어 있다. 분자 모터는 작용기에 메틸기가 결합한 분자 두 개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한 분자의 작용기가 다른 분자의 메틸기와 마주하면서 조금씩 겹치도록 배열되어 있다. 특정 자외선 파장에 노출되면 분자 하나가 180° 회전한다. 이렇게 되면 작용기와 메틸기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서 작용기에서 메틸기가 결합하지 않은 부분끼리 겹치게 되어 회전하던 분자의 진로에 장애가 발생한다. 적절한 열 에너지가 제공되면 작용기의 겹친 부분이 교차되어 이 장애가 해소된다. 이후 자외선에 의해

다시 분자가 180° 회전하면서 배열 순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회전하던 분자의 작용기와 메틸기 모두 다른 분자의 메틸기, 작용기와 각각 겹쳐 회전 진로에 장애가 발생한다. 이는 열 에너지에 의해 다시 해소되면서 회전하던 분자는 결과적으로 한 바퀴를 돌게 된다.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연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이 구현된다.

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카테네인에는 공유 결합과 기계적 결합이 존재한다.
- ② 분자 서틀은 로타세인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좌우 직선 운동을 한다.
- ③ 카테네인과 로타세인은 모두 물리적 자극을 받아 연속적 운동을 할 수 있다.
- ④ 분자 엘리베이터와 인공 근육의 작동은 분자의 위치 이동을 통해 가능해진다.
- ⑤ 카테네인과 로타세인은 모두 위상학적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결합을 유지한다.

9.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개별 분자 내의 기계적 결합의 세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② 개별 분자 내 결합이 위상학적 상관관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③ 물리적 연결만으로는 개별 분자 간의 결합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개별 분자들이 공유 결합을 제외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 분자 집합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 ⑤ 개별 분자 간의 결합을 끊는 데에는 공유 결합을 끊는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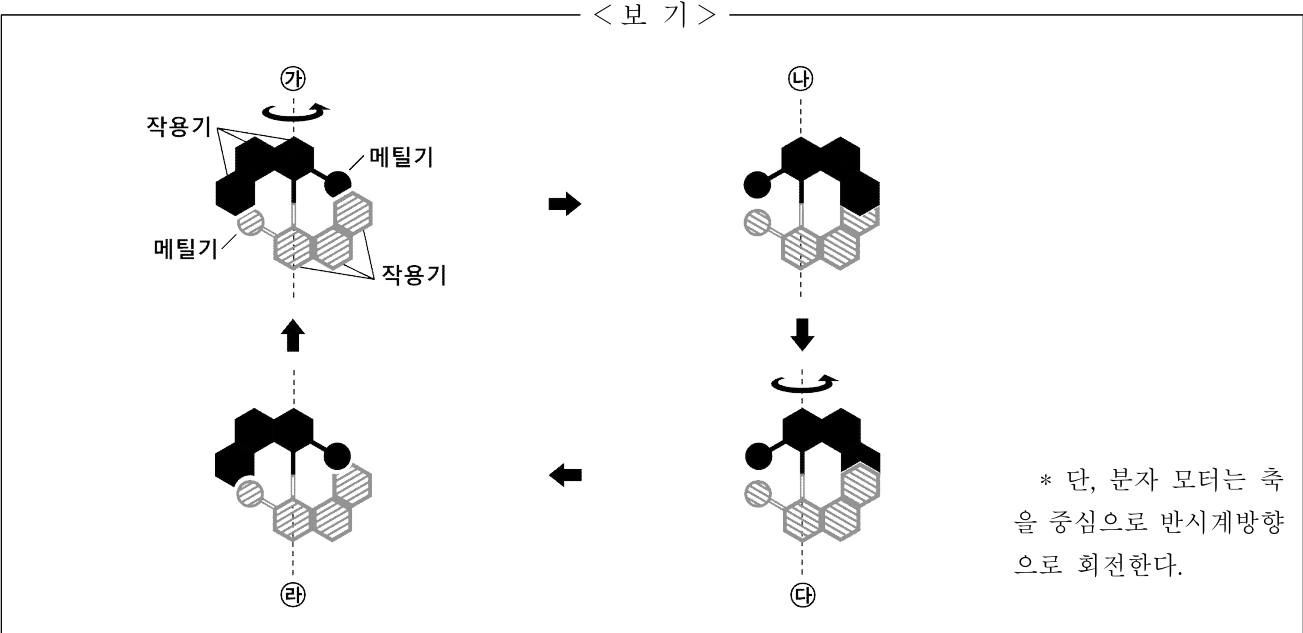
10. <보기>는 ㉠에 대한 추가 자료이다. <보기>와 윗글을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화학자 브뢴스테드와 로우리는 산은 양성자인 수소 이온(H⁺)을 주는 물질이며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산과 염기는 양성자가 이동한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하나의 물질과, 그 물질에서 양성자가 이동하고 난 후의 물질 간의 관계를 ‘짝산-짝염기’ 관계라고 한다.

- ① <그림 2>의 ㉠과 ㉡는 서로 ‘짝산-짝염기’ 관계에 있는 물질들이다.
- ② 결합 자리 I이 양성자화된다는 것은 수소 이온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 ③ <그림 2>에서 양성자를 받은 ㉡는 염기를 넣으면 다시 ㉠로 되돌아간다.
- ④ 고리와 결합 자리 I 사이에 정전기적 반발력이 생기면 양성자의 이동이 발생한다.
- ⑤ 양성자가 유입됨으로써 로탁세인의 고리 분자가 결합 자리 I에서 결합 자리 II로 이동한다.

11. <보기>는 ㉢의 작동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작용기가 180° 회전하면 메틸기는 메틸기끼리, 작용기는 작용기끼리 마주하도록 배열된다.
- ② ㉤로 바뀌어 발생한 장애는 자외선을 받음으로써 해소된다.
- ③ ㉤와 ㉥ 사이에서 작용기가 교차하지 않는다면 분자 기계는 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없다.
- ④ ㉣을 ㉤로 바뀌게 하는 자극과 ㉥을 ㉦로 바뀌게 하는 자극은 같다.
- ⑤ ㉦가 다시 ㉣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적절한 열 에너지가 요구된다.

[12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왕릉의 석물은 왕릉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 여러 가지 형상의 돌 조형물로 조선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 「국조오례의」*에 제시된 엄격한 예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작되었다. 석물은 건축물과 달리 여러 차례의 역사적 혼란 속에서도 현재까지 대부분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유산이다. 거대한 잔디 언덕에 있는 왕의 무덤인 봉분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석물은 수직과 수평의 형태를 띠어 봉분의 곡선과 조화를 ㉠ 이룬다. 또한 크기에 따라 적절히 안배되어 설치 조각으로서 조형적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조선 왕릉의 석물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화강암은 풍화 작용에 의한 마멸에 매우 강해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내구성을 지녔지만,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여 조각하기가 매우 ㉡ 어렵다. 재료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교한 세부 묘사 없이 간결하며 단순한 덩어리로 표현된 조선 왕릉의 석물은 정제된 장엄미를 자아내며, 석물의 표면에 거칠게 남아 있는 정 자국은 투박하면서도 다부진 느낌을 준다. 이는 무르고 입자가 고운 대리석이나 사암을 재료로 하여 세밀하고 예리한 선을 ㉢ 살린 조각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 왕릉 석물만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 왕릉의 석물은 병풍석, 난간석과 같은 보호물의 기능을 하는 석물, 혼유석, 망주석, 장명등과 같은 공예품 형상의 석물, 석인(石人), ㉣ 석수(石獸)와 같은 인간과 동물 형상의 석물로 구분된다. 조선 왕릉에서 봉분이 위치한 공간인 능침 공간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며, 석물은 이들 구역에 나뉘어 배치되었다. 능침 공간의 가장 높은 단인 상계에 있는 봉분의 둘레에는 병풍석을 둘러서 봉분을 보호하고 장식했으며, 그 바깥으로 봉분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난간석이 놓였다. 난간석 바깥에는 양 모양의 석양(石羊)과 호랑이 형상의 석호(石虎)가 봉분을 둘러싸듯이 배치되어 능을 수호하는 의미를 드러내었다. 이들은 봉분을 등지고 머리를 밖으로 향하였는데, 이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온순한 양과 사나운 호랑이는 각각 음과 양의 기운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석양과 석호는 좌우 대칭으로 각 두 쌍씩 번갈아 배치되어 음양의 조화를 꾀하였다. 봉분 앞에는 상(床)의 형태로 만들어진 혼유석이 놓여 있고, 그 좌우에는 촛대 모양의 망주석이 있다. 다음으로 능침 공간의 중계에는 등불 모양의 장명등이 배설되어 있으며, 공복을 입고 왕을 배알하는 문인 모습의 석물인 문석인 한 쌍이 각각의 이동 수단인 석마(石馬)를 대동하고 서로 마주보게 배치되었다. 능침 공간의 가장 아랫단인 하계에는 갑옷을 입고 왕을 호위하는 무인 모습의 석물인 무석인 한 쌍과 석마 한 쌍이 놓여 있다.

조선 왕릉의 석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형적 특징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 일어났다. 석물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석인에서는 다른 석물에 비해 시기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무석인보다 문석인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은 크게 4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중반까지에 해당하는 제1기는 관대*를 착용하고 손에 홀*을 들고 서 있는 문석인 형상의 기틀을 갖추게 된 시기이다. 두 손 위로 소매가 겹쳐져 있어 홀을 잡은 손이 감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2기는 문석인의 크기가 3m 내외로 가장 거대해진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이다. 이 시기의 문석인은 사실적인 입체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부피감 있게 조각되어 거대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독특한 인물상이 되었다. 특히 머리의 크기가 두드러지는 3등신에 ㉥ 가까운 신체 비례는 현실과 다른 초월적 느낌을 주며, 탁 트인 야외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존재감으로 왕실의 위용을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이 때부터 홀을 쥔 문석인의 손이 드러나며 공복의 소매가 양옆으로 완전히 벌어진 형태를 띠게 되었다. 제3기는 임병 양란과 극심한 자연재해로 왕릉 구성에 곤란을 겪었던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이다. 숙종의 석물 간소화 정책으로 문석인의 평균 크기가 176cm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고, 획일적으로 경직된 자세와 딱딱하고 직선적인 옷 주름 표현이 정형화되었다.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에 해당하는 제4기에는 문석인의 크기가 다시 2m 이상으로 커지고 사실주의의 영향으로 머리 크기가 줄어들어 실제 신체 비례에 근접하게 되었다. 또한 조각 기법의 발전으로 재료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이 극복되어 세부 표현이 한층 정교해졌고, 복두

를 쓴 이전 시기의 문석인과는 달리 금관을 쓴 문석인이 등장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일본에서 근대 서양식 조각 기법이 도입되어 문석인의 모습이 이국적으로 변하며 전통을 상실하게 되었다.

- * 국조오례의: 1474년(성종 5년) 왕명으로 편찬된 국가의 기본 예식인 오례(五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
- * 관대: 조선 시대 문관들의 공복(公服). 공복 차림에는 머리에 복두나 금관을 썼음.
- * 홀: 조선 시대에 문관들이 임금을 알현할 때 손에 쥐던 물건.

1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상계의 혼유석과 중계의 장명등 모두 그 좌우에는 촛대 모양의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 ② 조선 왕릉의 석물은 엄격한 예법에 근거를 두어 오랜 세월 동안 체계적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
- ③ 잔디 언덕 위에 세워진 조선 왕릉의 석물은 다양한 크기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조형미가 뛰어나다.
- ④ 조선 왕릉의 석물은 내구성이 강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대부분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 ⑤ 능침 공간의 가장 높은 단에 위치한 왕의 무덤은 보호의 기능을 하는 병풍석과 난간석으로 둘러싸여 있다.

13. <보기>는 ㉠에 대한 추가 자료이다. <보기>와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황제릉과 제왕릉을 아우르는 중국 왕릉에서 석양, 석호, 석마를 포함한 모든 석수들은 능의 입구에 배치되어 봉분 쪽을 향해 일렬로 도열해 있는데, 이는 석수에 의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왕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중국 왕릉의 석마는 왕의 말을 관리하는 마관(馬官)이 함께 조각되어 왕의 영혼을 태우고 승천하는 천마(天馬)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

- ① 석수가 봉분 쪽을 향하고 있는 중국 왕릉과 달리, 조선 왕릉의 석양과 석호는 능 밖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어 벽사의 상징성이 강조되었군.
- ② 석수가 능 입구에 배치된 중국 왕릉과 달리, 조선 왕릉의 석양과 석호는 봉분 주위를 둘러싸듯이 배치되어 능을 수호하는 의미를 드러내었군.
- ③ 석수가 일렬로 도열하듯 놓인 중국 왕릉과 달리, 조선 왕릉의 석양과 석호는 대칭을 이루며 봉분 양쪽에 교차 배치되어 음양의 측면에서 조화로운 구성을 보여주었군.
- ④ 모든 석수가 동일한 공간에 놓인 중국 왕릉과 달리, 조선 왕릉에서 석수는 단차로 나뉜 각각의 구역에 하나의 종류씩 배치되어 수행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군.
- ⑤ 석마가 승천을 위한 왕의 소유물로서 마관과 함께 서 있는 중국 왕릉과 달리, 조선 왕릉의 석마는 석인과 나란히 배치되어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었군.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와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320cm

A



220cm

B

A는 16세기에 만들어진 문석인이다. 잔뜩 웅크린 어깨부터 관대 끝자락까지의 신체 윤곽선이 일(一)자형이며, 머리와 두 손을 매우 크게 표현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B는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문석인으로 유연한 곡선미와 늘씬한 신체가 돋보인다. 특히 금관 둘레의 화려한 연꽃 문양은 조각임에도 마치 회화같이 표현되어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수준 높은 기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① A는 실제보다 과장된 신체 비례로 표현되어 초월적 느낌을 주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3m가 넘는 크기의 A는 신체 윤곽선이 간결하게 표현되어 부피감 있는 거대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2기 문석인의 특징에 부합하는군.
- ③ B는 쓰고 있는 금관 둘레의 문양까지 섬세하게 조각되어 세부적 표현이 정교한 4기 문석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군.
- ④ 늘씬한 신체가 부드러운 윤곽선으로 표현된 B는 새로운 재료에 적용한 조각 기법의 발전으로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난 문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⑤ A와 B는 모두 hollow를 잡은 양손이 드러나게 조각되어 소맷자락이 좌우로 벌어진 형태로 표현된 문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15. 문맥상 ㉠ ~ ㉥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3점]

- ① ㉠: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적이 없다.
- ② ㉡: 동생은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서 그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 한다.
- ③ ㉢: 사람들은 사그라드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썼다.
- ④ ㉣: 나를 놀리는 말에 화가 불쭙 일어나서 말다툼을 하였다.
- ⑤ ㉤: 그 영화는 개봉 첫날부터 백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몰렸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끼오리*도 현신짜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락있도 머리카락도 형겔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 백석, 「모닥불」 -

- * 새끼오리: 새끼줄 조각. ‘오리’는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
- * 갓신창: 가족신 바닥에 댄 창. ‘갓신’은 ‘가족신’의 옛말.
- * 개니빠디: 개의 이빨. ‘니빠디’는 ‘이빨’의 평북 방언.
- * 너울쪽: 널빤지.
- * 짚검불: 지푸라기.
- * 닭의 깃: 닭의 깃털. ‘깃’은 ‘깃’의 방언.
- * 재당: 향촌의 최고 어른에 대한 존칭.
- * 초시: 과거의 첫 시험. 또는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 예전에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양반을 높여 이르던 말.
- * 문장(門長): 한 문중에서 향렬과 나이가 제일 위인 사람.
- * 갓사둔: 새사둔.
- * 몽둥발이: 몽둥발이. 떨어져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나)

눈 위에 주름 귀 밑에 물사마귀
 다들 한결같이 낯설지가 않다
 아저씨 위대까지 가신대유
한강만 넘으면 초면끼리 주고받는
 맥주보다 달빛에 먼저 취한다
그 저수지에서 불거지 참 많이 잡혔지유
 찻간에 가득한 **고향의 풀냄새**
 달빛에서는 **귀뚜라미 울음도 들린다**
아직 대목장이 제법 크게 손대면서유
 쫓기고 시달린 삶이 꼭 꿈결 같아
 터진 손이 조금도 쓰리지 않고
 감도 꽤 붉었겠지유 인제
 ㉡ 이 하루의 행복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도 적지 않으리
 여봐유 방앗간집 할머니 아니슈
 돌려 세우면 처음 보는 시골 늙은 아낙
선물 보따리가 달빛 속을 달려가고
 너무 똑같아 실례했슈
모두들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낮선 데가 하나도 없는 귀성열차

- 신경림, 「귀성열차」 -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의 연속적 배치로 상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대화와 진술을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다.
- ④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제시된 장면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가)와 (나)는 이질적 존재들이 어울리는 순간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존재들은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무화(無化)시키고 하나의 동질성을 획득하면서 어울림의 순간을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한 매개체를 통하여 혹은 시공간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가)의 1연에서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 어려운 각양각색의 사물들은 ‘타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모닥불’을 만들어낸다.
- ② (가)의 2연에서 ‘재당’과 ‘초시’로부터 ‘큰개’와 ‘강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가 무화되어 동질성의 차원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나)의 ‘귀성열차’는 ‘모두들 모르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낮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아우르는 동질화의 공간이다.
- ④ (나)의 ‘한강’은 ‘고향의 풀냄새’와 ‘귀뚜라미 울음’으로 충만한 공간이 ‘선물 보따리’의 종착역으로 인식되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 ⑤ (나)의 ‘그 저수지에서 불거지 참 많이 잡혔지유’, ‘아직 대목장이 제법 크게 순대면서유’와 같은 말은, 사람들 사이의 이질성과 심리적 거리를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 ㉡ 모두에는 대상의 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 ② ㉠과 ㉡ 모두에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③ ㉠과 ㉡ 모두에서 화자의 인식이 역사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에는 화자가 느끼는 비애의 정서가, ㉡에는 화자가 잠겨 있는 안도의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⑤ ㉠에는 화자 자신의 현재에 대한 성찰이, ㉡에는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내용] 가세가 기울어 시골집에 혼자 사는 어머니를 방문하는 고향길은 ‘나’에게 늘 고역으로 다가온다. 이런 이유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고향 사람들을 피하려고 새벽차에 오르지만, 앞차의 사고로 버스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난감해한다. 버스 안에서는 옛장수 아낙을 중심으로 옛편이 벌어지고, ‘나’는 아낙에게 옛편을 멈추고 사람 값을 하라며 욕박지른다.

나의 공박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차 속은 한동안 민망스럽도록 조용한 침묵만 흐르고 있었다. 나의 생각을 거두고 나서거나 그것에 호응을 해올 기미 같은 건 더더구나 전혀 기대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무엇인가 꼭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듯싶은 일을 방금 해치우고 난 듯한 후련스러움이, 혹은 그것으로 나는 최소한이나마 내가 지녀야 할 사람 값을 치르고 난 듯한 홀가분한 기분이 은밀스럽게 가슴으로 스며왔다. 그리고 그 **후련스럽고 홀가분한 기분**엔, 내겐 어찌면 차가 가고 못 가고조차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닌 듯싶었다. 사람들이 내게 호응을 해오거나 말거나 그걸 굳이 상관할 게 없었다. 나는 이제 그것으로 더 이상 나서야 할 일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만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자리를 편하게 고쳐앉았다.

㉠ 그런데 그때였다.

나는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게다가 너무 일찍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사람 값이라, 사람 값. 그게 참 좋은 말이제…….”

㉡ 조용하기만 하던 차 뒤편에서 누군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좀 전에 내가 아낙네에게 쏘아댄 말을 두고 하는 소리가 분명했다. 그것도 그런 소리를 함부로 내쫓은 내 쪽을 은근히 이죽거리고 있는 기미가 역력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소리에 용기를 얻은 듯 이번에는 바로 등 뒷자리의 여자가 노골적으로 나를 지목하고 나섰다.

“글씨 말이오. 우리도 다 제 돈 주고 탄 찬디, 누군 뭐 당한 줄 모르고 답답한 줄 몰라서 이려고들 앉았겠소. 차를 아주 안 타고 땡길라면 모를까, 이나마 차편까지 아주 끊어놓고 말라고…….”

그러자 그 소리에 뒤이어 다시 여기저기서 저희끼린 듯 듣기 거북한 말들을 보태나갔다.

“젠장맞을! 우리 골 찾길 나쁜 게 국회의원 잘못 뽑은 허물인 중 알았는디, 인제서 진짜 국회의원감 한 사람 만났구만그러.”

“허기사 우리 같은 시골 무지랭인 제 옷꼴이 뭇이 되는지 찬비를 맞는지도 모르는 놈들잉께…….”

“지 몸에 해로울 것인디, 젊은 신사 양반 너무 혼자만 잘난 척 나서지 맙시다. 기분 난다고 무단한 소리 해서 운전사 양반 비위나 건드리리다. 그래 봐야 저 양반한테 혼자 차에서 내리란 소리나 들을 텐께…….”

㉢ 모두가 등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었다. 호응은커녕 비방과 빈정거리는 소리 일색이었다.

어쨌거나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태였다.

나는 금세 다시 목구멍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치솟아올랐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소리들 앞에 얼핏 눈을 뜨고 나설 수가 없었다. 눈을 뜨고 그 사람들과 맞서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눈을 꼭 감은 채 그냥 그대로 참아넘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무슨 말로 맞서봐야 먹혀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다. 아니 이제는 나 자신 그 사람들 앞에 맞서고 나설 말이 없었다. 맞서고 나설 육신의 기력도 없었다. 내겐 이제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볼 기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온몸이 그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들어가고 있었다.

[A] 그렇게 그냥 눈을 감고 있자니 아깃번처럼 또 **거대한 높이**가 나를 **깊이 감싸고 들기** 시작했다. 그 높이는 **갈수록 거대한 힘**으로 나를 끝없이 빨아들이고 있었다. 사지를 버둥거릴수록 그 힘은 **더욱더 깊은 늪** 밑바닥으로 나를 **무섭게 빨아들었다**. 내 몸뚱이는 **바야흐로** 그 거대하게 살아 있는 수렁의 힘 속으로 혼적도 없이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

“지금은 엿이나 먹고 있을 계제가 아니라……. 것도 참 말인즉 옳은 말이제.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보처럼

옛이라도 빨아묵고 앉아 있지 않으면 그래 이 차를 등에 짊어지고 고개를 넘어갈 제주라도 내놓으란 말인가.....”

이윽고 다시 등 뒤쪽 남자가 나를 이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옛장수 아낙이 아직 옛덩일 손에 들고 있는지, 자신이 옛을 사주겠다는 듯 호기 있게 아낙을 불렀다.

“옛소 아주머니, 그 옛 내게 주시요.”

돈까지 치러 건네려는 기미였다.

나는 계속 못 들은 척 눈을 감고 버티었다.

㉔ 하지만 아낙은 아낙대로 또 내게 무슨 공박할 말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헛친절이 발단이 되어 사람들로 부터 내가 너무 당하고 있는 데 대한 민망스러움에서였을까. 그녀는 웬일인지 남자에게 옛을 팔 생각을 안 했다.

“가만계세요. 내가 언제 옛 팔아달랴디껴? 이걸 아까부터 이 젊은 선상님한테 드릴라고 한 것인데.....”

그녀는 되려 옛을 사고 싶어하는 남자를 나무라고 나서 내 쪽을 향해 추근추근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나 좀 보시드라고요. 나 선상님한테 할 말이 좀 있구만요. 그러니까 이 옛이나 드시면서 내 얘기 좀 들어보시드라고요.”

무슨 수작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또 내게 옛을 권해오고 있었다. 눈을 감은 짐작에도 그녀는 다시 내 앞에 옛을 내밀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는 역시 못 들은 척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낙은 이미 작심한 바가 있는 듯 말을 계속해 나갔다.

“보아하니 선상님은 아매 이런 길이 침인 것 같아서 따로 허물은 말 앓겠소. 하기사 이런 일 많이 안 당해본 사람은 이런 때 성질이 안 끓어 오를 수도 없을 텐데요. 침엔 우리도 다 그랬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씩 이런 길을 땡기면서 이꼴 저꼴 참아넘기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여비만 좀 모자라도 차를 내려라 마라, 뼈속한 불평 한마디만 말해도 노선을 죽인다 살린다..... 차를 아주 안 타고 살라면 몰라도 그런 일 저런 일에 어떻게 다 아는 척을 하고 살겠소.....”

㉕ 아낙이 말을 도맡고 있는 동안 차 안에서 그녀를 방해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비가 어떻게 되어나가는지 모두들 조용히 둘 사이의 동정만 지켜보는 기미였다. 나는 갈수록 눈을 뜨기가 난처해지고 있었다.

나는 계속 눈을 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낙의 푸념은 그럴수록 더 깊고 거대한 늪 속으로 나를 힘차게 옥죄어들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늪의 숨결과 인력에 빨려들어 자신의 형체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B] 그러다 어느 순간—나는 자신이 끝없이 분해되어가는 듯한 허망스런 무력감 속에서 문득 그 살아 있는 늪의 마지막 밑바닥이 발밑에 닿아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늪의 깊고도 견고한 밑바닥에서 나는 마침내 죽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질기디질긴 삶의 숨결과 그 삶들의 따스한 온기가 조용히 파도쳐 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 이청준, 「살아 있는 늪」 -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과거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제시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20.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특정 시점을 강조하여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주목을 유도하고 있다.
- ② ㉡: 하나의 발화를 다른 문장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그 의미를 부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서로 다른 발화를 종합하여 그 발화들의 공통된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질문의 형식으로 행동의 이유를 탐색하여 그 행동이 뜻밖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서술의 초점을 다른 대상으로 옮겨 사건의 정황을 다각도로 전달하고 있다.

※ <보기>를 읽고 21번과 22번의 두 질문에 답하시오.

— < 보 기 > —

이 작품의 서사는 ‘나’가 우연한 사고를 계기로 고향과 고향 사람들에 대한 오랜 거부감에서 벗어나 이해의 국면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특정한 공간에서 ‘나’의 침묵과 고향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비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전개되며, ㉠ 이는 ‘늪’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드러난다.

21. <보기>와 윗글을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나’와 고향 사람들이 사고로 버스 안에 갇히게 된 것은 ‘나’의 침묵과 고향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비될 수 있는 상황적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옛장수 아낙’을 공박한 ‘나’가 ‘후련스럽고 홀가분한 기분’을 느낀 것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 함께 고향에 대해 오래 물어왔던 거부감을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군.
- ③ ‘나’의 공박이 끝나고 사람들의 발화가 이어지면서, ‘나’가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군.
- ④ ‘나’의 공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편을 벌이려고 하는 ‘등 뒤쪽 남자’의 행동을 계기로 고향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다변화되고 있군.
- ⑤ 일방적으로 공박을 쏟아낸 ‘나’와 달리 ‘나’의 입장을 감안하는 ‘옛장수 아낙’의 목소리는,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만들어 ‘나’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겠군.

22. ㉠와 관련지어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거대한 늪’이 ‘나’를 ‘깊이 감싸고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가 당면한 상황을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 ② [A]에서 ‘깊은 늪’은 ‘갈수록 거대한 힘’으로 ‘더욱더’ ‘나’를 ‘무섭게 빨아들’이는 것으로 제시되어, ‘나’가 자신을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B]에서 ‘나’가 ‘늪의 숨결과 인력에 빨려들’어 ‘형체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나’가 고향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심리적 무력감을 보여준다.
- ④ [B]에서 ‘나’가 ‘어느 순간’ ‘살아 있는 늪’의 ‘밑바닥이 발밑에 닿아움을 느끼’는 것은 ‘나’가 고향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⑤ [B]에서 ‘나’가 ‘살아 있는 늪’에서 ‘조용히 파도쳐 오르’는 ‘질기디질기 삶의 숨결’을 느낀 것은, ‘나’가 무기력해 보이는 고향 사람들이 실은 상황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희야 구럭 망태 거두어라 서산에 날 늦었다
 밤 지낸 고사리 하마 아니 자라시라
 이 몸이 이 푸새 아니면 조석 어이 지내리

<1장, 서산에서 나물을 캐다>

□ 아희야 도롱이 샷샷 차리어라 동쪽 시내에 비 지거다
 [A] 기나긴 낙대에 미늘* 업슨 낙시 매어

□ 저 고기 놀나지 마라 내 흥 계워 하노라

<2장, 동쪽 시내에서 물고기를 보다>

아희야 죽조반 다오 남쪽 이랑에 일 만해라

㉠ 서투론 따부*를 놀 마조 자부려노

두어라 성세(聖世) 궁경(躬耕)도 역균은이시니라

<3장, 남쪽 이랑에서 밭을 갈다>

아희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성곽에 새 술 먹자

대취한 얼굴을 달빛에 시러오니

㉡ 어즈버 회황상인(羲皇上人)*을 오늘 다시 보와다

<4장, 북쪽 성곽에서 술을 먹고 돌아가다>

- 조존성, 「호아곡(呼兒曲)」 -

* 미늘: 뉘싯바늘 끝의 갈고리.

* 따부: 농기구의 하나.

* 회황상인: 중국의 시조인 북희씨 이전의 사람. 세상일을 잊고 한가하고 편안히 숨어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나)

동풍이 살짝 불어 침실에 들어오니
 창밖의 찬 매화 이 소식을 먼저 안다
 천지가 화창하여 꽃과 버들이 아름다움 다투니
 풍영단 방수단에 미친 흥이 끝이 없다
 와룡산에 비 갠 후에 고사리 손수 꺾어 국으로 달이니
 조석의 음식맛이 족함도 이내 분수로다

㉢ 온 산에 꽃 다 지고 나무에 새잎 나니

□ 녹음이 가득하여 여름날이 아주 긴 때에
 돌베개에 낮잠 깨어 함벽당을 굽어보니

[B] 그곳에 도는 고기 날날이 다 셀 만하다

□ 대숲의 서늘한 기운 연잎의 물방울 흩어지게 하니

□ 군자의 맑은 성품 여기서 알리로다

㉣ 기러기 한 소리에 맑은 서리 물들이고

산빛이 변하여 금수로 꾸몄으니

□ 곡구암 반타암이 그림 되어 동구에 잠겨 있다

밝은 달이 떠올라 소나무에 비추거든

□ 거문고 바로 안고 난간에 기대니

□ 깃털옷 입은 손님은 다 나를 찾아와 눈에 가득 보이도다

세모에 날씨 차고 온 산에 눈 덮이니
 인적은 끊어지고 우는 새도 없는 때에
 언덕과 골짜기는 백옥 궁궐 경요굴이 되었거늘
 ㉠ 울창한 소나무는 혼자서 빼어나 높은 기개 가졌으니
 내 마음도 그런 줄을 서로 알아 무고암에 서성이니
 우리의 지조 절개야 고칠 줄이 있으랴
 아마도 이 정자 작지만 다 갖추었네
 춘하추동에 눈과 달, 바람과 꽃을 다 가졌으니
 무엇을 아니 보며 어느 것을 버리리오

- 김득연, 「지수정가(止水亭歌)」 -

23. ‘아희(야)’에 주목하여 (가)의 각 장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설명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아희’의 존재를 개입시켜 정적인 장면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아희’에게 내리는 지시에 이어 지시를 내리게 된 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각 장에서 ‘아희야’를 반복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감흥을 절제하고 있다.
- ④ 각 장을 ‘아희야’로 시작함으로써 청자에게 교훈을 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 ⑤ ‘아희’를 지시의 대상에서 흥취를 공유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2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의를 부각하고 있다.
- ② ㉡: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를 과거에서 찾아 현재 자신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 유사한 구조를 대응시켜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④ ㉣: 감각적 심상을 연동시켜 주변 경관의 변모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 자연물과 인간을 상호 교감하는 관계로 상정하여 특정 가치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5. <보기>를 읽고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강호와 전원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시가에서 시간과 공간은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표상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연 공간은 중앙과 네 개의 방위[사방(四方)]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사계절은 순리에 따라 흐르는 시간적 질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렇게 구조화된 질서와 섭리는 인간 사회로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작품에서 시적 주체는 이렇게 구조화된 시공간을 배경으로 자연에서 살아가며,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이러한 시가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고사리 캐기, 달 보기 등의 행위는 유교적 이념을 비롯한 정신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 ① (가)에 제시된 네 개의 방위는 자연의 공간적 질서를, (나)의 사계절은 자연의 시간적 질서를 표상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 ② (가)의 1장의 고사리 캐기는 (나)의 ‘고사리 손수 꺾어’에서도 나타나는 행위로서, 이는 안분지족하는 시적 주체의 정신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4장에서 ‘달빛’에 주목하는 행위는, (나)에서 ‘밝은 달’을 완상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군은’에 내포된 사회적 질서와 유교적 가치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가)에서 각 장의 공간은 시적 주체가 거주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방을 향하는 것으로 배분되어, 시적 주체가 수행하는 행위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나)의 ‘이 정자’가 ‘작지만 다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드러내는 사계절의 흐름과 정경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6. [A]의 **저 고기**와 [B]의 **그곳에 노는 고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저 고기’는 ‘기나긴 낙대’를 들게 된 후의 결과이고, ‘그곳에 노는 고기’는 ‘낮잠’을 깨게 된 원인이다.
- ② ‘저 고기’는 ‘놀나지’ 말아야 할 적막함을 나타내고, ‘그곳에 노는 고기’는 ‘연잎의 물방울’을 흩어지게 하는 소란함을 나타낸다.
- ③ ‘저 고기’는 ‘동쪽 시내’의 정경을 조망하게 하는 자연물이고, ‘그곳의 노는 고기’는 ‘함벽당’을 굽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자연물이다.
- ④ ‘저 고기’는 ‘비’와 어울려 ‘시내’의 생동감을 고조시키는 존재이고, ‘그곳의 노는 고기’는 ‘녹음’이 가득한 ‘여름날’의 무료함을 부각하는 존재이다.
- ⑤ ‘저 고기’는 ‘미늘 업슨 낙시’와 연결되어 무욕의 태도와 ‘홍’을 드러내고, ‘그곳의 노는 고기’는 ‘대숲’, ‘연잎’과 어울려 ‘군자의 맑은 성품’을 환기하게 한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선의 장수 강홍립은 명을 도와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해 출정했으나, 우두머리인 누르하치에게 투항한 후 그의 충애를 받아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 무렵 조선에서 역모에 가담했던 한운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온다. 그는 강홍립의 일가친척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누르하치에게 조선 정벌을 설득하도록 강홍립을 부추긴다.

홍립이 스스로 생각건대 자신의 일족을 멸한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아내를 아끼는 마음 또한 저버릴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엇치락뒤치락하는 사이에 몇 달이 흘렀다.

㉠ 한운은 홍립이 주저하는 것을 보고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힐난했다.

“대감께서 아버이를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항복해 목숨을 구걸한 까닭에 온 집안 사람이 벌을 받아 유혈이 낭자하건만, 대감께서는 부귀에 젖고 아녀자에게 빠져 눈앞의 즐거움만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 무슨 면목으로 천하의 의사(義士)들을 대하시렵니까? 지금 조선은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철기병을 이끌고 간다면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일처럼 쉬울 것입니다. 대감은 어찌 원대한 계책을 품지 않으십니까?”

홍립이 깨달은 바가 있어 마침내 누르하치에게 말했다.

“조선은 천하의 훌륭한 무기가 있는 곳입니다. 좋은 활과 긴 창, 정교한 대포와 날카로운 검이 모두 조선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무(武)에 능한 나라이건만, **풍속은 교활함을 숭상하여 인재를 등용할 때 세력과 이익을 보아 사람을 씩니다.** 그러므로 민심이 이반하여 일이 생기면 관망하거나 피해 버립니다. 그러나 재능 있는 인물들은 자신의 재주를 펴 보기를 고대하고 있으므로, 조선을 침략한 후 그들을 불러내 기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선 전역의 인재들이 못 별들이 북극성을 둘러싸듯 그 사람을 추종할 것입니다. ㉡ 우(虞)나라에서는 어리석었지만 진(秦)나라에서는 지혜로웠던 백리해와 같은 사람도 있고, 수나라에서는 아첨이나 일삼았지만 당나라에서는 충성을 다했던 배구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휘에 능한 이로 하여금 강병을 훈련시키고 하늘의 위엄을 받들어 말을 몰아 동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조선에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한들 명을 위한 계책을 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어 주군께 거두어진 뒤 조금의 공도 세운 바 없습니다. ㉢ 지금 군사를 일으키는 때를 맞아 선봉에 세워 주신다면 조선의 가왕(假王)이 되어 지혜롭고 용맹한 이를 모으고 그중 가장 정예한 자들을 뽑아 10만 군대를 갖추어 보이겠습니다. 이로써 주군의 은혜에 보답할 뿐 아니라 하늘이 주신 천하 통일의 기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하치가 웃으며 말했다.

“자네의 말은 옳지 않네. 조선 사람은 예의를 숭상하니 침공하기는 쉽지만 복종시키기는 참으로 어렵지. 옛날 원나라 세조(世祖)는 그 힘이 천하를 평정할 만했건만, 고려를 완전히 복종시키지 못하고 30년 전쟁 끝에 부마국(駙馬國)을 만드는 데 그쳤을 뿐이네. 지금 우리 병력이 강하긴 하지만 군사를 나누면 힘이 작아져, 일부 병력만으로 급히 조선 공격에 나섰다가는 군대를 돌이키지 못한 채 공연히 세월만 끌게 될 거야. 그래서요 동쪽을 넘어 중원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테니,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것은 올바른 계책이라 할 수 없네. 그러니 지금 최선의 방책은 동쪽으로 조선과 화의를 맺고 남쪽으로 명나라와 싸움을 벌여 곧장 연경(燕京)을 점령한 후 천하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네. 또 옛사람은 **죽음에 이르더라도 감히 자신이 군주로 섬기던 이를 노예로 만드는 일은 도모하지 않았거늘,** 자네는 왜 자기 조국을 이처럼 원수로 여기는가? 최유(崔濡)의 일을 거울로 삼을 만하니, 자네는 깊이 생각해 보게!”

[A]

㉣ 홍립은 누르하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는 여러 가지 이익을 들어 꼬여 봐야겠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물러나 상소를 올렸다. 홍립은 상소에서 극단적인 말로, 조선은 방비가 매우 허술하고 민심이 이반되어 있으며 여인들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은보화가 가득하다고 중언부언하며 속히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 세 번 거듭 상소를 올리다가 급기야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지금도 오랑캐에게는 ‘강홍립 상소문’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많으며 사람들이 모두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누르하치는 홍립이 스스로 조선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보고는 내심 화가 나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 홍립은 때를 잘못 만나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함을 한탄하매 분함을 못 이겨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었다.

병인년(1626) 가을, 누르하치가 영원위(寧遠衛)에서 패하고 돌아와 죽었다. 아들 홍타이지가 군주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홍타이지는 새로 즉위하여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므로 조선과 화의를 맺고자 하여 이 일을 홍립과 의논하였다. 홍립이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군신(君臣)이 입술과 이처럼 명나라와 찰싹 붙어 있어서 사신 한 사람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화의를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철기병 수만을 보내 싸움을 벌인 뒤에 화의를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동쪽으로 조선과는 화친을 맺고 남쪽으로 명과 전쟁을 벌인다는 계획 때문에 그동안 대사를 이루지 못한 것이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조선과 전쟁하는 것의 이로움은 앞서 논한 바와 같으니, 지금 바로 시행하실 것을 청합니다. 일이 혹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화의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홍타이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대업을 계승하고 선왕의 뜻을 좇아 옛 신하를 기용하려 하오. 선친은 선생의 계책을 써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소. 선생이 우리나라에 충성을 다 바쳤음은 짐이 이미 가슴 깊이 새겨 두고 있소. 지금 조선과 우호를 유지하는 것은 선친의 뜻인데, 조선을 침공하자는 선생의 말이 시종 이리 간곡하니 필시 생각이 있어서일 것이오. 조선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돕고 지내자는 것이 선친의 유지이고,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자는 게 선생의 계획이니, 이제 이 둘을 모두 시도해 보겠소. 만일 하늘의 도움을 입어 쉽게 조선을 이긴다면 선생을 조선의 왕으로 삼겠소. 그러니 선생은 사양하지 말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 조선을 치도록 하시오. 선생으로서는 금의환향하는 일이고, 짐으로서는 장차 중원을 공략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될 것이오. 만에 하나 조선의 왕과 하늘을 걸고 맹세하여 길이 우호 관계를 맺는다면 동쪽에 대한 근심을 덜고 남쪽으로 명을 치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오. 이는 선친께서 내게 남겨 주신 만세토록 무궁한 이익을 얻는 방책이오. 조선에 출정하는 군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선생께 맡기겠소. 가서 힘써 주시오!”

마침내 두 왕자에게 명을 내려, 날랜 기병 3만을 선발하고 홍립을 장군으로 삼아 조선으로 가게 했다. 한윤은 군대의 앞에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 권칙, 「강로전」 -

2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현재에서 과거의 순서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우의적 설정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해학적 표현으로 특정 계층의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서술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초월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28.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결심을 촉구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다.
- ② ㉡: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들고 있다.
- ③ ㉢: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의 이익에 부합함을 설득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 ⑤ ㉣: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려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B] 모두 중원을 공략하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 ② [A]와 [B] 모두 조선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 ③ [A]와 [B]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④ [A]와는 달리 [B]에서는 조선을 침공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
- ⑤ [B]와는 달리 [A]에서는 현재의 병력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강로전」은 ‘강로’ 즉 ‘강씨 오랑캐’로 규정된 강홍립을 부정적 인물로 내세워 형상화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17세기 조선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인 명나라를 숭상하고 오랑캐를 배격한다는 ‘숭명배호’의 정치적 이념이 놓여 있다. 아울러 이 작품에는 서열로서 신분적 한계를 가졌던 작가 자신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배어 있기도 하다.

- ① ‘강로전’이라는 작품의 제목은, 강홍립 이야기를 숭명배호의 정치적 이념에 근거하여 서술하겠다는 의도를 압축적으로 담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조선과 명의 관계를 거론하며 단기간 내에는 조선과의 화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강홍립의 말은, 숭명배호의 가치관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풍속은 교활함을 숭상하여 인재를 등용할 때 세력과 이익을 보아 사람을 씩니다’라는 강홍립의 말에는, 당대의 인재 등용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명나라를 도와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해 출정했던 강홍립이 누르하치를 주군으로 섬기는 것은, 그가 숭명배호의 이념에 어긋나는 인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겠군.
- ⑤ ‘죽음에 이르더라도 감히 자신이 군주로 섬기던 이를 노예로 만드는 일은 도모하지’ 않는다는 누르하치의 말은, 강홍립이 지닌 부정적 인물로서의 면모를 한층 강화한다고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관